

하늘

구미 동부 초등학교

1학년 9반 김민제

하늘에 새가 날아 다니네.

보니까

바다의 꽃 같네.

하늘의 비행기는

바다의 물결 같네.

바다 한 가운데를

가만히 쳐다보네.

“아, 숨막혀.”

꼭 바다 같아서...

그 하늘바다에 풍덩

뛰어들어가

실컷 수영하고 싶어 지네.